

대한 양계협회

소식

양계사업용 토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합산과세 납부자 환부 가능

본회는 지난 1일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234조에 의거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되어야 함에도 일선 시·군에서 타용도의 토지와 합산과세를 하고 있어 내무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질의를 하였다.

양계장 및 부대시설용 토지의 지목이 지적부상 목장용지가 아니고 잡종지, 대지,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분리과세가 되지않아 양계농가의 세부담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하였다.

○ 양계장 및 부대시설용 토지가 공부상 목장용지로 되어 있지 않고 잡종지, 대지 또는 전, 답 등 다른 지목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사실상 양계장 및 부대시설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지방세법상 목장용지로 인정하여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양계업은 대개의 경우 아직까지 그 규모가 영세하고 시설이 낙후된 전근대적 계사로서 80% 이상이 무허가건물인바 이 경우도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양계장 용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받지 못하고 합산과세 통보를 받은자(기위 납부자 포함)가 시정을 요청하거나 환부를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이에대한 내무부의 회신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제2항제3호 및 동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동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계사업의 축산 및 부대시설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안에서 소유하는 토지는 지방세법의 현황부과 원칙에 의거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며, 관세내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과오납금은 과오납금 환부제도에 의거 해당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환부통지서를 받은 다음에 환부받으면 된다.

농지불법전용 계사 양성화 조치 건의

정부의 UR대책 보완 요청

본회는 농림수산부가 UR 축산분야 대응방안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키로 한 제도개선중 축산시설 용지의 확보한 해소대책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다.

'88년 10월 31일 이전 농지불법전용의 경우 도지사가 조사하여 양성화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88년 농지불법전용억제 및 처리대책시에도 일선행정기관에서 양계업을 치부성 사업으로 잘못 적용하여 양성화 조치를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에도 양계업을 고의성 또는 치부성 사업으로 간주하여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양계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생업차원의 수단이라는 확실한 정의를 내려주어 양성화 조치 과정에서 양계장이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건의하였다.

또 농지에 축산시설을 설치시 대체조성비 규모를 현재 1,500㎡에서 3,000㎡로 확대조정 한다는 방침에 대해 규모에 관계없이 대체조성비 전액을 면제하도록 요청하였다. 3,000㎡ 이하의 경우 부업규모에만 혜택을 줄 수 있으며 UR대책의 전업 축산농가 육성방안과는 무관한 조치이기 때문에 규모에 관계없이 대체농지조성비 전액을 면제하도록 건의하였다.

제3회 전국육계인대회 개최

가격안정대 설치 건의



본회 육계분과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 1박2일간 경주 도투락월드에서 제3회 전국육계인대회를 개최하였다.

전국 각지역 육계인 3백여명이 참가하여 육계산업 세미나와 토론회를 가졌다.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 이인형 과장이 “수입개방대책과 양계산업 정책방향”, 건국대학교 김정주 교수가 “생산자 단체가 주도한 육계산업의 계열화 생산”, 건국대학교 오세정 교수가 “육계인의 의식개혁”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날 모인 전국 육계인들은 그동안 가격파동을 수없이 겪으면서 인내심과 긍지를 갖고 닭고기를 생산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화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상품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하고 이를 위하여 육계인들은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양계산물 가격안정대를 설치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하였다. 육계산업은 규모가 영세하며 유통구조가 전근대적으로 정상거래가 어렵고, 계절적 수요변동이 심할뿐 아니라 생산기간이 짧아 가격진폭이 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격안정대를 설치하여 수매비축을 제도화하도록 육계인의 결의로 건의하였다.

또 전국 육계인은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육계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하기로 결의하였다.

1. 육계업은 우리의 천직이며 우리가 주인이므로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의 생업사수를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
2. 우리 육계인은 동업자 의식으로 굳게 뭉쳐 서로 협조하면서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우리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생산자 조직에 적극 참여한다.
3. 우리 육계인은 가격안정과 소비확대를 위해 자율적 생산조절 및 생산성향상과 소비홍보사업 등 자조금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4. 우리 육계인은 육계산업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 육계산업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모든 행위를 제거함과 동시에 터무니 없이 높은 값의 병아리 입식을 자제한다.
5. 우리 육계인은 취약한 국내 육계산업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을 때까지 정부의 대책없는 양계산물의 수입개방과 U. R 농산물 협상을 절대 반대한다.

마사회 체육부 이관 반대 탄원서 제출 정부의 농축산업 포기로 간주

농촌문제가 절박한 시점에서 정부는 행정업무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축산진흥기금 조성으로 우리나라 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한국마사회를 체육부로 이관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본회를 비롯한 16개 축산단체, 학회는 한국마사회 설립취지와 정신, 우리나라 축산현실을 무시한 정부 발상으로 당연히 농림수산부에서 관장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각계 요소에 제출했다.

탄원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마사회를 농림수산부 소관에서 체육부로 이관시킨다는 것은 한국마사회법 정신에도 어긋난 행정편의만을 고려한 발상이 아닐 수 없는 바, 지난 8월 1일 법률 제4251호로 개정공포된 한국마사회법에는 마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법 제1조) 농림수산부가 소관부처임이 명백하고 말의 개량증식을 위한 마사진흥과 축산진흥을 위한 한국마사회의 설립취지에도 농림수산부 소관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거니와 경마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체육부 소관으로 마사업무를 관장하는 나라가 없음을 유의하시어 힘으로 밀어부치기식 행정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나라 농축산업은 선진국의 수입개방 압력으로 존립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태로 유사 이래 최악의 농정부재 현상에 직면해있고 우루과이 농산물협상의 주안대로 정부의 농업에 대한 보조금 감축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있는 불행한 상황에서는 축산업의 기반 조성과 진흥을 위한 획기적인 축산진흥기금 조성만이 최대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사회 운영 수익금을 축산진흥기금에 충당하여 우리나라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

하고 농어민 복지에 사용되고 있는 현행 운영체제를 바꾸어 체육진흥기금확대 목적으로 마사회 수익금을 앗아 간다는 것은 엄청난 역사적 과오를 범하는 처사이며 정부의 농축산업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하여 농민들을 흥분킴으로써 수입개방에 대응한 정부의 각종 공약구호의 허구성을 그대로 노출시킨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그동안 적자운영의 한국마사회를 축산진흥기금 지원을 통해 흑자경영으로 전환시키자 주무부인 농림수산부와는 상의조차없이 체육부 이관계획이 발표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농민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단면을 드러낸 예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지난 8월 1일에 개정공포한 한국마사회법을 불과 2개월 남짓한 10월 22일에 다시 법개정을 통해 농림수산부 소관에서 체육부로 이관하겠다는 조령모개식 발상을 제시하였는가 하면, 농축산업의 어려운 현실과는 아랑곳 없이 농민의 생존권조차 스포츠 명목으로 가볍게 개정을 일삼는다면 제도와 법운영의 일관성 결여는 물론이고 우리농민이 법을 믿고 따르는데 있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넷째로 정부의 축산업 경시풍조에 대해 양축농민의 정부불신이 극도에 달해 이제 정부를 신뢰하여 생업에 전념키 어려운 분위기로 치닫는 상황임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농축산물 수입으로 인해 수급불균형 문제나 가격파동이 야기될 때마다 정부는 농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공약을 쉽게 되풀이해 왔고, 우루과이 농산물 협상에 앞서 정부의 축산업 기반조성 공약은 그럴듯하게 무성하면서도 축산진흥기금 조성원을 부처간 업무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차단하려함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모순이거니와, 이것이 과연 정부의 민생안정 우선정책인지 심한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었다.

경마는 말이 경주대상이지 사람의 신체적 운동 행위가 아니므로 체육차원의 관리운운도 문제이려니와 설령 경마가 체육이라 한들 농민의 생존권보다 우선한 체육이 있을 수 있는지 묻지않을 수 없는바, 이번의 한국마사회 체육부 이관계획은 모든 축산인과 농민의 정부불신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위화감을 조장시키는 천부당만부당한 조치이므로 농민들의 전국적 저항이 표출되기 전에 이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무어분사료 설명회 겸해



11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최준구)가 지난 16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도 중부지역에서 여전히 성행되고 있는 후장기 발급과 2중 가격 문제에 대해 집중적 토론이 있었다. 또한 중부지역의 유통질서 문란은 영·호남지역의 난가고시에 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따라서 유통개선을 위해 양계인의 단합이 절대 필요하다고 다짐하고 계란 출하시 반드시 직장기를 끊어 문란한 유통구조를 바로 잡기로 결의했다.

산란계 무어분 사료에 대한 비디오 시청이 있었으며, 참석자들은 생산성 향상 뿐만 아니라 계란

에서 이취가 나지 않으므로 앞으로 무어분 사료를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채란업계 조직 활성화 건에 대해 채란분과 위원회와 전국계우회연합회를 현재대로 존속키로 하였다. 다음 월례회는 전국계우회연합회 총회를 겸하여 12월14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육계계열화 심포지엄 개최

전주에서 현지 시찰 겸해



본회와 한국가금학회는 지난 17일 전북 전주 공무원교육원에서 육계계열화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미국사료곡물협회 박영인 회장이 "통합경영체계의 개요", 건국대학교 김정주 교수가 "육계통합경영의 기대효과",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 이인형 과장이 "육계계열화 지원시책"에 대한 발표와 전라북도 축정과 백승운 과장이 "전라북도 육계통합경영 현황" 하림식품 김홍국 사장이 "육계계열주체의 사례", 축협중앙회 박순용 부장이 "협동조합위주 통합경영 방안", 주식회사 부경 이종길 사장이 "생산자 주도의 육계계열화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또한 현지시찰은 하림식품 계약사육농가와 도계장 건축현장 등을 시찰하였다.

부화장 설치시 대체 조성비 면제요청

부화장도 농업용 시설

부화장이 농업용 시설임에도 농지전용시 대체 농지조성비가 부과되고 있어 본회에서는 지난 17일 농림수산부에 이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부화장은 병아리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1차 처리시설인 농업용 시설에 해당된다. 따라서 종계장을 경영하는 자가 종계장 내에 부화장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농지전용 규모에 따라 대체 조성비를 면제나 감면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질의하였다.

의정부분회 사무실 이전

본회 의정부분회(분회장 원용주) 사무실이 이전했다.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4동 219-17 (3/5)

· 전화 : (0351)43-4248

대두박 관세율 인상계획 철회 요청

재벌 대두3사 비호 정책부재 노출

본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는 정부가 동방유량, 제일제당, 삼양유지의 대두3사 대두박 관세율 인상요구를 받아들여 현행 3%인 대두박 관세율을 20~35%까지 상향조정하려는 정부의 처사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국내 콩재배 농민을 위한 명분이라면 콩의 관세를 조정하거나 식용유가격 조정이 타당한 대책이지, 대두3사의 영리집착에 맞도록 대두박가격을 계속 높게 유지하기 위한 대두박 관세율 인상은 양축농민의 부담을 전제로 대두3사의 농간에 정

부가 앞장선다는 것은 콩재배 농민을 담보로 특정 재벌을 비호하는 전근대적 행정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대두3사는 국내 콩재배 농민 보호를 운운하면서 수입이 금지된 반제품 조유를 수입해다 단순정제해 판매를 시도하고 있다. 또 그동안 대두박가격을 국제시세 보다 kg당 90원이상 비싸게 60만톤을 판매하여 연간 540여억원의 부당차익을 양축가 부담으로 수취해왔고, 독점체제의 비윤리적 대두박 판매로 사료업계와 양축농민 원성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국내 콩재배 농민을 위해서 정책지원 등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콩재배 농민을 내세워 오히려 양축농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대두3사의 특혜를 위한 관세율 인상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농민간 부담을 전가시키려는 행위에 급급할 뿐 정책부재 현상을 노출시키는 단면이어서 양축가의 정부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두박 관세율 인상추진계획을 즉시 백지화하고, 현행 3%의 대두박 관세율을 수입자유화되는 91년부터 무관세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양계산업박람회 개최기로 결정

91년 9~10월중 서울에서

양계산업 안정적 발전을 위한 한국양계산업박람회를 오는 91년 9~10월중 서울에서 개최기로 하였다.

양계산업박람회 개최준비위원회(위원장 오봉국)는 지난 22일 본회 회의실에서 양계산업 관련 인사 16명이 모인 가운데 준비 모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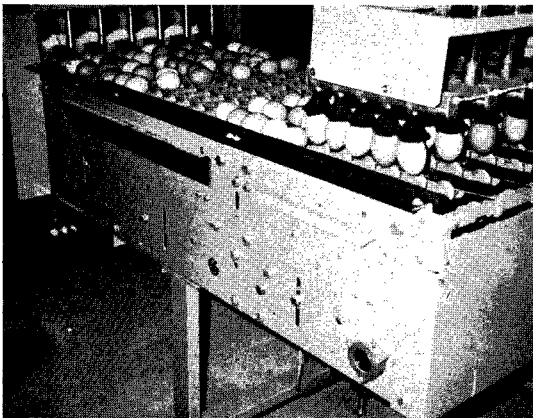
이날 모임에서는 행사명칭을 한국양계산업박람회로 칭하기로 했으며 내년 9~10월에 개최기로 하였다. 박람회 주최는 본회가 맡기로 하였으며

후원과 협찬처를 섭외키로 하였다.

대회장에는 본회 신흥종 회장이, 추진위원장은 서울대 오봉국 교수가 추대되었으며 자문위원 14명과 추진위원 30명이 위촉되었다.

G. P 센터 농공단지 입주 건의

농업용 시설로 인정되어야



본회는 지난 17일 농림수산부에 계란 G. P 센터 설치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계란양계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전되어 왔으나 전근대적 유통구조로 인해 생산자 가격은 낮고, 소비자 가격은 높게 형성되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G. P 센터 정착이 절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최근에는 식품의 위생관리까지 제고해야 하는 입장으로 계란에 대한 상품가치를 높이고 수급조절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G. P 센터의 확대 설치운영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그러나 G. P 센터를 설치코자 하여도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로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많아 농공단지에 입주코자 하여도 경제기획원 산업분류표상에 식품제조업에 포함되지 않아 입주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관련기관의 해석이다.

또 농지를 전용하여 G. P 센터 부지로 활용하려고 해도 G. P 센터는 법률상 농업용 시설에 해

당되지 않다는 이유로 전용허가를 기피당하고 있으며,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토록 조치하고 있어 G. P 센터 확대설치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농림수산부에 질의하였다.

다 음

○계란의 G. P 센터는 각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을 집하하여 선별, 등급, 세란, 포장 등 업무를 담당하는 1차 처리시설로 가공(제조)공장에 해당된다고 생각될 뿐 아니라 수급조절 기능(비축포함)까지 담당하게 되므로 농공단지 입주 대상업종으로 지정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농림수산부 소득 1600-77(90. 10. 11)에 의거 타 제조업종보다 입주에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귀견여하

○계란의 G. P 센터는 각 농가에서 계란을 집하하여 선별 등급, 세란, 포장 등 업무를 담당하는 1차처리 시설이므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업용시설"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귀견여하

○농지전용업무 처리심사 세부규정 제12조의 농지전용시 조성비 부과 및 감면기준에 의하면 농가가 허가대상인 농가주택 및 농어업용 시설을 위한 농지전용을 하고자 할때 전용규모에 따라 대체농지 조성비를 면제 또는 감면토록 되어 있는바 G. P 센터가 농업용 시설로 인정된다면 다음의 경우 농가로 인정받아 대체농지조성비의 면제 또는 감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양계농가가 농지의 전용을 받아 G. P 센터를 설치코자 할때
- 다수의 양계농가가 계란의 공동 출하를 위하여 농지전용을 받아 공동으로 G. P 센터를 설치코자 할때
- 계란의 계열화 생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열주체(계열주체는 양계농가임)가 G. P 센터를 설치코자 할때.

'91년도 가계부 제작

5,000부 회원 및 소비자에게 배포

본회는 닭고기·계란의 우수성을 담은 가계부를 제작해 전국의 소비자에게 양계산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닭고기·계란의 소비촉진은 물론 가계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91년도 가계부를 제작한다.

이번에 제작하는 가계부는 15,000부(4×6배판)로 가계부 기록면에 칸을 활용하여 닭고기 계란의 우수성은 물론 간단한 양계산물 요리법도 기록하였다.

본 가계부는 (주)경우식품, (주)두산식품, 쉐프터기후라이드치킨, (주)퓨리나코리아에서 협찬하였다.

전국순회양계질병 세미나 개최

신제품 내열성 ND생독백신 설명회 겸해

대성미생물연구소를 본회의 후원으로 새로 개발한 내열성 ND 생독백신 설명회를 겸해 전국순회 양계질병세미나를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6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천호그룹 오경록 박사의 "새로운 가금질병 및 백신접종"에 대한 강의와 대성미생물연구소 허원 생산이사의 "내열성 ND 생독백신"에 대한 설명이 있다.

○ 장소 및 일정

날 짜	시 간	지 역	장 소
11월27일	오후2시	경북·대구	대구 뉴영남호텔회의실
11월28일	오후1시30분	경남·부산	부산 온천예식장
12월 6일	〃	경기·강원	서울 축산회관 회의실
12월 7일	〃	충남북·대전	유성 유성예식원
12월11일	〃	전 북	전주 제일예식장
12월12일	〃	전남·광주	광주 고려예식장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연말 육계경기 불투명 전망

11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강석부)가 지난 26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 3일 경주도투락월드에서 개최한 제3회 전국 육계인대회의 결산보고가 있었다. 또 내년 육계인대회는 한국양계산업박람회와 같이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육계경기에 대해서는 연말 닭고기가격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가 있었다. 병아리가격이나 생산잠재력에서 미치는 영향은 물론 냉동비축물량의 방출, 석유가격 인상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침체가 예상된다고 분석하였다.

양계산물 수입 금증

품 목	연 도	건 수	수입량(kg)	금액(\$)
계 육	88	11	10,566	18,241
	89	21	40,407	213,621
칠면조육	88	37	128,762	255,616
	89	32	249,727	502,707
오 리 육	88	12	30,988	92,369
	89	8	34,278	117,696
병 아 리	88	35	292,552	1,565,149
	89	53	531,218	2,896,641
계 란	88	9	4,810	2,366
	89	42	259,920	55,681
난 백 ²⁾	88	80	1,921,329	1,718,395
	89	127	2,922,728	5,023,447

1) 단위 : 마리

2) 89년 난백분 포함